

## 기록관리로 목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나 현 채

(주)에그리텍이앤씨(E&C)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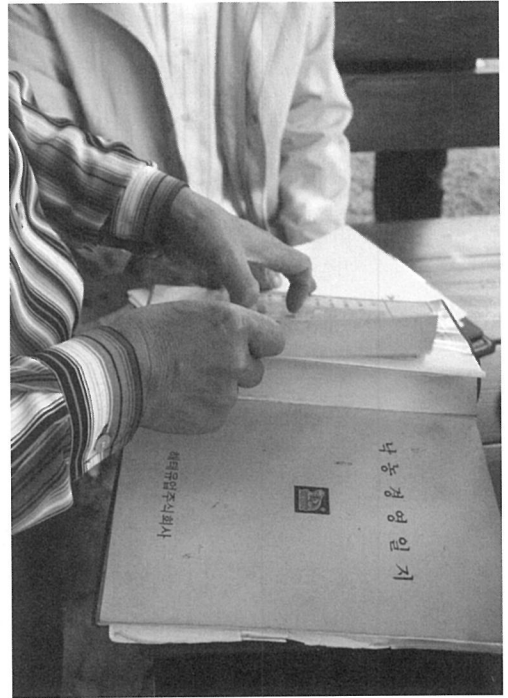
최근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반 흰우유 시장(저지방, 유기농, 멸균 등 제외) 규모는 9,36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1조 1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9,950억 원, 2015년 9,45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1조 원을 넘어섰던 2013년과 비교하면 7.3% 줄어든 셈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내 우유 총 소비량은 증가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우유소비량은 1986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 톤을 돌파했고 1994년 200만 톤, 2001년 300만톤을 각각 넘어섰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 후 경제가 고성장하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는 우유 소비량도 빠른 속도로 늘었던 것이다.

2016년 우유소비량은 11월말 현재 360만톤으로 연간 기준 39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식문화의 변화로 최근 치즈, 버터 등 각종 유제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300만톤을 돌파한 지 13년이 지나도록 400만 톤대로 진입하지 못했다. 100만톤에서 200만톤으로 성장하는데 8년, 300만톤을 돌파하는데 7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속도가 더더진 셈이다.

연간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은 IMF 외환위기였던 1997년(31.5kg)이 정점이었다. 극심한 불황으로 모든 지출을 줄였지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완전식품으로 알려진 우유만큼은 마지막까지 끊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 된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기조로 우유 주소비층인 영유아수가 감소하면서 흰우유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다. 2015년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은 26.6kg으로 1997년보다 5kg(15.5%) 가까이 감소했다.

통계자료가 알려주듯 젖소 착유우 두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우유생산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우유 생산비나 경영비도 조금이나마 낮아져서 원유가격연동제 시행 후 처음으로 원유가격을 18원/ℓ (1.9%) 인하하였지만 흰우유 소비량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 속에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지금이다. 백색시유가 팔리지 않아 유업계에서는 수익구조 악화를 호소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길 역시 2015년 기준 1,794만 달러(207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사드리스크와 2018년부터 시행될 “신제조분유법”까지 걸림돌로 부상될 조짐이니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유업계 전반적으로 소비량 이상의 원유생산량과 높은 원유가격을 들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또한 언제쯤 모두가 만족할 “낙농산업발전” 방안이 마련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내 농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만약 생산비나 경영비 통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생산자 원유가격 인하가 또 시행된다면, 좋은 일일까? 내 농장의 생산비와 경영비도 낮아졌을까? 내 농장의 손익분기점은 어디일까?

사전적으로 손익분기점이라 함은, 일정기간의 조수익(판매액)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拂된 비용이 일치하여 이익과 손실이 없는 점(break-even point)을 말한다.

낮아진 원유값이 과연 내 농장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우유판매량 및 판매액에 대한 정보와 목장의 비용구조,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고정비는 생산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소요되는 비용, 변동비는 생산의 증감에 비례하여 변동하는 비용으로 이론적으로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고정비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비가 고정화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변동비는 사료비, 수도광열비, 수정료 등을 포함하며, 고정비는 변동비 이외의 비용으로, 고정자산재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수선비, 임차료와 급료 등을 포함한다.

낙농육우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농가경영안정의 일환으로 목장경영일지를 “간편장부” 형식으로 원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고 있다(사진참조). 통계청이나 각종 관련 기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숫자들이 결국 내 농장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면, 내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우유의 “원가”를 알면 쉽게 비교될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된 “목장경영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 전세계 낙농환경에서 내 농장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한 해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농장은 더 발전해나갈 수 있다. ☺

